

李白 산문 〈春夜宴桃李園序〉의 평가와 ‘浮生’의 해석에 대한 고찰

서 용 준*

〈目次〉

- | | |
|----------------------------------|-----------------------|
| I. 서언 | V. 李白의 謙讓 |
| II. 〈春夜宴桃李園序〉의 원문과
해석 및 내용 구조 | VI. ‘浮生若夢’의 해석에 대해 |
| III. ‘及時行樂’은 소극적인가? | VII. 李白의 詩文에서 ‘浮生’의 예 |
| IV. 〈春夜宴桃李園序〉는 어떻게
슬픔을 극복했나? | VIII. 결어 |

I. 서언

唐詩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하나인 李白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유명한 산문 작품도 지었다. 그 가운데에 〈春夜宴桃李園序〉는 역대로 이백의 개성적인 특징이 많이 들어있다고 평가받아왔다. 현재에도 중국 문화권에 서는 중등학교 이상의 중국어나 고문 교재로 자주 사용되며 한국에서도 여러 한문 교재에 실려있다. 그 반면에 〈춘야연도리원서〉의 전문 연구 저작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주로 이 산문 작품이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내용이 연계되는 작품 없이 독립적이면서도, 그 해석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중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의 四六駢儷文의 형식을 가진 이 글은 도리어 古文의 選集인 《古文觀止》와 《古文眞寶》에 모두 실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으나 이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하자면, 이 〈춘야연도리원서〉라는 글은 보통의 변려문에 대한 인식처럼 그 내용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고문에 대한 인식처럼 문장의 내용 전개가 단순하다. 즉 이 글은 마치 이백의 한시와 같은 (시적 형식이든 내용적 과장이든) 화려함을 지녔지만 도리어 진지한 고문과 같은 유장하거나 심각한 내용이 없다. 물론 이것이 〈춘야연도리원서〉의 여러 장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춘야연도리원서〉에는 중국 문학사상, 또는 중국 문화사상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인생’에 대한 평론의 하나가 나온다. 그것은 “浮生若夢, 爲歡幾何.”이다. 당연히 이 구절은 우리가 전체 〈춘야연도리원서〉의 글의 내용 속에서 읽고 평가할 주제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구절이 마치 인용구처럼 독립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어쩌면 현재 독립적으로 알려진 이 구절의 인상이 이백의 본래 산문의 문장에서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이 유명한 구절을 되도록 〈춘야연도리원서〉의 일부로서 이해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태도는 현재 제한된 수량의 〈춘야연도리원서〉에 대한 연구들과 그리고 독자적인 ‘부생약몽’에 대한 세간의 이해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필자는 본론에서 그 차이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浮生’이라는 이 유명한 단어이자 명제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백의 산문 〈춘야연도리원서〉를 문학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 산문에서 유래한 ‘부생약몽, 위환기하’라는 유명한 탄식을 다시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백의 산문과 이백의 인생 선언에 대한 여러 해석에서 비교적 부족하게 느껴졌던 글의 의미에 대한 문학적 분석과 이백의 인생관에 대한 의미 부여에 새로운 내용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春夜宴桃李園序〉의 원문과 해석¹⁾ 및 내용 구조

夫天地者，萬物之逆旅。光陰者，百代之過客也。而浮生若夢，爲歡幾何？古人秉燭夜遊，良有以也。沉陽春召我以烟景，大塊假我以文章。會桃李之芳園，序天倫之樂事。群季俊秀，皆爲惠連。吾人詠歌，獨慚康樂。幽賞未已，高談轉清。開瓊筵以坐花，飛羽觴而醉月。不有佳作，何伸雅懷？如詩不成，罰依金谷酒數。

천지라는 것은 만물의 여관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손님이다. 그러니 인생은 꿈과 같아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옛사람이 촛불을 잡고 밤에 놀았던 것이 참으로 이유가 있었다. 하물며 따뜻한 봄날이 안개 낀 경치로 나를 부르고, 대지가 아름다운 무너를 내게 빌려주었음에랴.

복사꽃과 오얏꽃의 향기로운 동산에 모여 하늘이 내린 인륜의 즐거운 일을 펼친다. 여러 아우는 뛰어나고 빼어난이 모두 사해련이지만 내가 율고 노래하는 것은 홀로 사령운에게 부끄럽구나. 그윽한 감상은 끝나지 않고 고상한 담론은 점점 맑아진다. 경옥 자리를 펼쳐 꽃 속에 앉고 깃털 잔을 날려 달 속에서 취한다. 뛰어난 작품이 없으면 어떻게 우아한 정회를 펴겠는가? 만약 시를 짓지 못한다면 별은 금곡원의 별주 수를 따르리라.

이 〈춘야연도리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훌륭한 해석과 해설이 있다. 전체 내용 단락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보통 가장 많이 따르는 것처럼 두 단락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여기에서 첫째 단락은 주로 인생무상의 자각에서 기인한 ‘급시행락’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 단락은 형제의 모임과 놀이의 즐거움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 구조에 대한 파악은 필자 역시 형식적으로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춘야연도리원서〉의 내용을 전반부의 상실감과 후반부의 극복으로 결론

1) 인용 원문은 李白(예추이화 등 역), 《시의 신선 이백이 글을 짓다 이태백 문집》, 박문사, 2019, 148쪽을 참고하였다. 번역은 필자가 직접 하였다.

짓는 기존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구조 해석에 기반한다. 필자가 제기하려는 의문 또한 같은 구조에 기반한다. 과연 <춘야연도리원서>의 전반부는 소위 ‘부생약몽’으로 대표되는 인생무상의 상실감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정말로 이 글의 후반부는 이 정서를 극적으로 극복하였는가?

그러므로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주된 해석과 평가에 대해 필자가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 차이가 전체 글과 ‘부생약몽’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Ⅲ. ‘及時行樂’은 소극적인가?

<춘야연도리원서>의 전반부의 대강은 보통 ‘及時行樂’²⁾의 당위성으로 설명된다. 이 부분의 문장들은 모두 매우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문학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의 측면이나 그 철학적인 내용의 심오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행위 태도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전체 <춘야연도리원서>와 작가 이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즉 이백 특유의 과장으로 밝힌 우주 공간과 시간의 영원성에 대한 거창한 철학적 고찰이 결국 ‘급시행락’의 누구나 아는 찰나적인 유희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면,³⁾ 이 ‘급시행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심장한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이런 행동이 과연 제대로 된 문인이 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 2) 전반부의 대체적인 내용은 <古詩十九首>의 14편(……浩浩陰陽移, 年命如朝露……
…… 끝없이 음과 양이 바뀌고, 사람은 목숨은 아침 이슬과 같네……)과 15편
(生年不滿百, 常懷千歲憂. 晝短苦夜長, 何不秉燭游? 爲樂當及時, 何能待來
茲?…… 인생은 백년도 못 채우는데 언제나 천년의 걱정을 품는다. 낮은 짧고
괴로운 밤은 길어 어찌하여 횃불을 잡고 놀지 않느냐? 즐기는 것은 당연히 때
에 맞아야지, 어떻게 다음 해를 기다릴 수 있나?……)의 내용이 적절히 섞여
있다. ‘급시행락’의 용어 역시 <고시십구수>의 15편에서 나온 것인데, 급시행
락의 배후에는 일종의 괴로움이 존재한다.
- 3) ‘급시행락’의 태도에는 자연법칙을 긍정하고 인간 욕망을 부정하는 莊子 사상
적인 성격도 있다.

의문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중등학교 이상의 고문 교재에 이 〈춘야연도리원서〉가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급시행락’을 노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되도록 이백의 행위를 긍정하려는 교육 태도도 당연하다.

아마도 누군가가 인생에서 도덕적이고 건전한 생활 태도를 지향한다면, 그는 ‘급시행락’의 내재적인 숙명성과 비극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장려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 생명의 유한함과 무한함이 행락과 유희로 이어지는 것은 일종의 패배주의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백의 태도에 대한 해석이나 변호는 그 부정적 성격에 대한 해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즉 이백이 보인 ‘급시행락’적인 태도가 퇴폐적이거나 소극적인 불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 글에 적극적인 생명 긍정의 의미(꽃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⁴⁾

‘급시행락’이 소극적인 생활 태도로 여겨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주체적으로 인간 본인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자연 시간의 현상과 변화에 속박된다.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떤 이유 때문에 마치 인간사나 인생유한의 문제를 초월한 것처럼 급시행락을 하는 인물이든, 이들은 도리어 계절 환경이나 변화에 연연하고 급급하고 있다. 둘째, 설령 그들이 道家的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보이더라도 ‘급시행락’의 결과물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 이유(자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못 거창하게 벌인 일의 성과가 단지 생활의 활력소 정도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필자가 당장에 ‘급시행락’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에 대해 단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이 생활 태도가 이백의 글과 결합하였을 때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춘야연도리원서〉를 해설하며 연구자나 교육자들이 이 ‘급시행락’적 태도가 결코 소극적이지

4) 관련한 내용은 대체로 范培培, 王芳, 〈李白的“及時行樂”思想是消極的嗎?——以“春夜宴從弟桃李園序”爲例〉, 《文教資料》 12期, 2013과 郁梅, 〈浮生若夢——讀李白“春夜宴桃李園序”〉, 《名作欣賞》 第5期, 2012를 참고하였다.

않다고 변호하는 내용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 〈춘야연도리원서〉는 不定하고 無常한 人生이라는 숙명을 극복했다. 글의 전반부에 분명히 비애가 담겼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극복했기 때문에 이것은 ‘급시행락’의 좌절감에 빠지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다. 둘째, 이백은 다른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에서 노력 분투한 사람이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백은 결코 도사처럼 은거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그가 보이는 ‘급시행락’적인 태도가 그를 소극적 인물로 만들지 않는다.⁵⁾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 〈춘야연도리원서〉와 이백의 ‘급시행락’적인 태도에 관해 기존의 연구에서 위와 같이 논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백이 그의 글에서 어떤 방식으로 ‘급시행락’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즉, 이백이 글을 어떻게 썼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그의 시문학 작품들 속에서 이백은 ‘급시행락’에도 포함된 인생무상의 숙명을 언제나 긍정했지만, 항상 자신이 ‘쫓겨난 신선(謫仙)’ 또는 ‘술의 신선(酒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한을 극복했다. 그의 시에서 이백은 숙명에 좌절해 비탄에 빠지는 인물도 아니었고,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끝없이 도전하는 승고한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시 속에서 술에 취해 가볍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신선이었다. 그러니 그의 시가 끝내 비애적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가 술을 마시며 급시행락을 운운할 때의 태도는 다른 문학 인물들과 차이가 있다.

가령 〈月下獨酌〉에서 이백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달과 그림자를 부르면서 그 이유가 ‘行樂은 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⁶⁾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급시행락’을 위해 자연물까지 동원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 발언의 중심은 ‘봄’이 아니라 ‘행락’에 있고 더 정확하게는 ‘飲酒’에

5) 이 두 가지 설명은 모두 결국 ‘급시행락’ 자체를 소극적인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백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6) 暫伴月將影, 行樂須及春. 잠시 달과 그림자와 벗하니 행락이 모름지기 봄에 미쳐야지.

있다. 술은 혼자 마시는 것보다 여럿이 마시는 것이 즐겁고, 경치가 좋은 곳에서 마시는 것이 좋고,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좋다. 여차피 여름이 되도 마실 것이지만 지금 날씨가 좋은 봄에 마시면 그것도 좋다. 그런데 다시 보면, 술은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마시고, 나쁘면 나빠서 마시고, 외로우면 외로워서 마시고, 즐거우면 즐거워서 마시고, 슬프면 슬퍼서 마신다. 음주를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정신세계를 가진 이 중국의 시인에게 다른 것들은 그저 술을 마시기 위한 일종의 안주인 셈이다.

이러한 판단은 시인이 시 속에서 자연 대상물이나 사상적 대상물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백은 ‘급시행락’을 이야기했지만 봄의 계절적 환경이나 구체적 자연 대상물에 대해 무관심하다. 다시 못 볼지 모르는 이 진귀한 봄의 경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그에게 ‘급시행락’과 ‘시간의 소중함과 애달픔’은 심정적인 결정적 관심사가 아니다. 적어도 그가 연연할 문제는 아니다.⁷⁾ 그저 술을 마시는 구실이고 술을 맛있게 하는 부추김이다.

〈월하독작〉처럼 〈춘야연도리원서〉의 전반부에서 이백은 현재 글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 자연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위대한 天地나 光陰은 이백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며 역대의 문학 속에 등장했던 존재들이다. 지나치게 거대한 그의 문학적 상상은 ‘浮生若夢’이라는 비극적일 수 있는 문제도 개념적으로 만들고 비현실적으로 만든다. 단지 사소한 문제로까지 들린다. 이백에게 ‘급시행락’은 시간에 속박된 자신의 숙명적인 처지를 위로하는 절박한 수단이 아니다. 밤에 나가 노는 일은 옛사람이 문학 작품(〈고시십구수〉)에서 이미 했던 행동이다. 이백은 이미 문헌에 실린 고대로부터의 관습을 따라 함으로써 광대한 천지 공간과 영

7) 친근한 예를 들자면, 지는 꽃이 안타까워 그걸 보려고 들에 나와 술을 마시는 인물과 술 마실 때 꽃이 있는 게 좋아서 들에 나와 술을 마시는 인물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친구가 좋아서 만나서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이 좋아서 친구를 부르는 사람은 친구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이백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원히 계절이 바뀌는 시간의 허무함 속에서 확고한 자신의 문화적 존재성을 부각한다.⁸⁾ 글 속의 이백은 옛사람을 따라 함으로써 음주하는 자신에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당성과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백이 소극적 ‘급시행락’을 준수했다거나 또는 적극적이고 건전한 ‘급시행락’을 했다는 주장은 모두 확고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모든 외부 대상을 자기 위주로 인식하는 문학 작품 속의 이백을 오해한 것이다. 어쩌면 나약한 인간 운명마저 초월해서 역사적 존재 가치를 확보한 <춘야연도리원서>의 이백은 그래서 그 증거를 다시 밝힌다. 陽春은 백 대를 바뀌며 과객 노릇을 한 光陰의 현재 모습이고, 大塊(대지 또는 자연)는 만물을 포용할 뿐 지켜주지 않던 天地의 현재 모습이다. 영원히 변화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거대한 시간과 공간이 이백에게 아름다운 경치와 문장을 가지고 대문화가 이백을 초대하였다. 인간 이백은 이러한 경치와 문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기꺼이 즐길 능력과 지위를 가졌다.

Ⅳ. <春夜宴桃李園序>는 어떻게 슬픔을 극복하였는가?

<춘야연도리원서>는 글의 종류에 따르면 序跋文의 序에 속한다. 역대로 중국에서는 어떤 장소에 모여 시를 모으거나 다른 글을 모을 때에 그 첫 글에 序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 평하는 많은 글⁹⁾은 이 <춘야연도리원서>가 가령 王羲之의 <蘭庭集序>나 王勃의 <滕王閣序>에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 모여 같이 즐기고 시문을 모으면서 자연의 영구함과 인생의 유한함에 슬퍼했던 것과 달리, 처음에 지녔던 悲哀 정조를 극복하고 참가한 모임의 즐거움으로 글을 끝냈다

8) 필자와 생각이 다르지만, 옛사람이 한 행동에 참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서술에서 확고한 역사적 존재 이유가 아닌, 영원히 반복되는 비극성을 느끼는 독자도 있을 수 있다.

9) 가령 郁梅, 앞의 논문이 있다.

고 칭송하였다. 비슷하게 인용하자면 많은 다른 序들이 ‘기뻐했다가 슬퍼하다(既喜而後悲)’인 것과 달리 〈춘야연도리원서〉는 ‘슬퍼했다가 기뻐하다(既悲而後喜)’라는 것이다.¹⁰⁾ 그리고 이 〈춘야연도리원서〉가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백 자신의 생애에 대한 강한 의지가 그를 인생의 비애를 극복하고 형제와의 만남을 즐기게 만들었다. 왕희지가 처했던 남조시대의 엄혹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난정집서〉를 비애에 침잠하게 만들었던 것과 달리 이백이 처한 정치적 문화적 상황은 희망적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적 분위기는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이른바 盛唐氣像¹¹⁾을 형성하였으며, 이 〈춘야연도리원서〉는 성당기상이 여실히 드러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제와의 이 모임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설명과 주장들은 정작 〈춘야연도리원서〉의 문학적 성격을 간과한 혐의가 있다. 이백은 이 글에서 원래 크게 슬퍼한 적이 없고, 글의 주제와 내용과 목적에도 특별히 슬퍼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백이 원래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백의 많은 시에는 이백 본인의 강한 슬픔이 들어있다. 다만 그의 슬픔은 매우 강하게 그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된다.

그래서 이 〈춘야연도리원서〉처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과연 이백이 관심을 보이는 문학적인 이백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춘야연도리원서〉에 나오는 이백은 시간의 추이,

10) 姚卿云, 李淑蘭, 〈‘春夜宴諸從弟桃李園序’教學設計與點評〉, 《新教育》 第8期, 2013, 34-35쪽 및 다른 논문 등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11) 盛唐之音이나 盛唐氣像은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성당시기 시나 문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문제이지만 어떤 한가지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다. 성당 시기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희망에 차 있었고 이것이 성당기상으로 드러났으며 그래서 성당기상은 희망에 차 있었고, 그래서 이백이 성당기상의 대표적 인물이며 杜甫는 성당보다는 中唐에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주장은 李澤厚가 그의 책 《美的歷程》에서 주장한 것으로 20세기 말에 한동안 중국과 한국의 고전 시가 학생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생의 허무함, 꽃의 떨어짐, 꿈의 니약함 등의 상상할 수 있는 고전 시가에 쓰였던 많은 정서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즐거운 장소에서라도 아무 때나 바로 눈물을 터뜨릴 선협적 준비가 되어있는 정서적으로 세심하면서도 도덕적¹²⁾으로 완비된 그런 문화적¹³⁾ 인물이 아니다.

이백은 桃李園¹⁴⁾에서 從弟들을 만났다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춘야연도리원서>의 후반부에는 이 장소와 경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전반부의 마지막에 陽春, 煙景, 大塊, 文章이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말이 나온 다음에, 이 장소에 대해 그리고 그 경치에 대해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桃李가 있고 꽃이 피었고 달이 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桃李가 단지 장소의 이름으로 兄弟愛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누군가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백은 ‘급시행락’을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자연 대상에 관심이 없다. 이백에게 중요한 것은 흔히 알 듯 급시행락의 진실한 대상인 꽃과 계절과 자연과 시간이 아니라, 급시행락의 철학적 이치를 깨우치고 그것을 우주적으로 실천하는 이백 본인이다.

일반적으로 소통을 위해 경치를 읊는 서문은, 가령 <난정집서>의 내용과 같이, 그들이 만난 이유를 먼저 쓴 다음에 실제로 그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쓴다. 그다음 저자의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공감이나 참여를 희망한다. 저자의 슬픈 마음은 다른 참가자들의 공감을 부른다. 그러나 이 <춘야연도리원서>는 현실 경치에서 글을 시작하지 않았다. 전반부를 문학적 전통을 축약한 철학적 선언으로 시작함으로써 이백은 이 글을 추상적 자연과 그 대리인인 이백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글의 후반부는 먼저 초대받은 이백이 다시 종제들을 초대하여

12) 이 인물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주로 사회, 도덕적 이유에서 슬픔을 느꼈을 때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만 중국의 고전 시인은 감정적이면서도 정통적이다.

13) 고전 한시의 가장 큰 폐단의 하나가 현실 시인 본인의 감정과 무관하게 시 속에서 무조건 슬퍼하는 것이었다.

14) 중요 연구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安陸에 있는 桃花巖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니다.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우주 자연 시간 공간의 깨달은 자, 이백은 마땅히 슬피하지 않는다.

이백이 급시행락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연 경물에 무심한 것은 <춘야연도리원서>와 이백의 시 <월하독작>과 비슷하다. <월하독작>에서 이백은 오직 달과 그림자만 이야기하지 자연 경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춘야연도리원서>에서 이백은 그저 꽃이 피고 달이 떴다고만 이야기하였다.¹⁵⁾ 그리고 이 두 작품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사건 발생의 시간이 밤이다. 즉 두 작품 모두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기 어렵다.

<춘야연도리원서>에서 “옛사람이 햇불을 들고 밤에 놀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치 이백이 햇불을 가지고서라도 자연 경치를 감상할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이백의 진심이었다면 이어서 글에 더 많은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백에게 지속되는 시간의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¹⁶⁾ 煙景과 文章은 모두 멀리서 봐야 보이는 경치이다. 이 글에서 이백이 말하는 煙景과 文章은 지금 이 밤에 이백이 눈으로 본 경치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서언에서 <춘야연도리원서>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저 하늘의 달과 가까이 있는 (무슨 꽃인지 별 관심도 없는) 꽃만 보이는 이 도리원에서, 이백은 시간의 변화를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어떤 대상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어두운 밤이었는지 또는 시간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경치를 봤다고 주장하며 거기에서 느꼈다는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주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이백은 자연 대상물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

15) 세부적인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

16) 이백은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주 고대의 시문학적인 예를 자신의 작품에 끌어들었다. 이는 당대 주류 문화에 충분히 합류하지 못한 경계인(주변인이라고도 함)인 이백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수단이었는 데 오히려 시대착오적이거나 판단착오적인 것이 많았다. 이와 달리 <춘야연도리원서>에서는 그 적용이 성공적으로 보인다.

다. 그는 자기의 관심사인 형제와의 술 마시기와 시 쓰기에만 관심을 보였고 그 이야기만 했다. 이 도리원의 경험적 자연보다 전반부의 문학적인 자연이 훨씬 중요했다. 마침 그 이름이 桃李인 것이 자손과 집안의 번창을 상징하는 것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이외의 다른 의미-이미 시간상으로 봄이라는 말은 이백이 많이 했다-가 별로 없다. 이백이 산속의 은자와 술을 마신 장소나, 달과 그림자와 같이 술을 마신 장소나, 이 글의 도리원이나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요란하고 위대한 이백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시를 쓴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가 다른 서문들과 달리 계절의 변화와 경치의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는 개인적이거나 시대적인 슬픔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글 속에서 이백이 만약 슬픔을 느꼈다면 그것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세계로 인한 슬픔이고, 사실은 글의 장소에 오기 전에 이미 소멸한 감정이다.

V. 李白의 謙讓

글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만만하고 주도적이었던 이백이 이 글에서 유일하게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백 자신이 마련한 자리에서 이 정도 겸양은 자연스럽다고 여긴 것이다.

群季俊秀, 皆爲惠連. 吾人詠歌, 獨慚康樂.

여러 아우는 뛰어나고 빼어남이 모두 사혜련이지만 내가 읊고 노래하는 것은 홀로 사령운에게 부끄럽구나.

그러나 우주 자연의 의뢰를 받았고 그 결과 글의 끝에서도 형제들에게

시를 못 지으면 별주를 내리겠다며 자신만만하던 이백이 이 장면에서 형제들은 사혜련과 견주지만 본인은 사령운만 못함이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과연 무엇이 부끄러운가? 글의 짧고 단순한 내용의 전개에서 이백이 보인 예상외의 자세는 과연 이 순간 이백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이 <춘야연도리원서>는 그 성취 수준의 문제와는 별개로도, 어쩌면 이백의 다른 古詩보다 문학적 기교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변려문이다. 桃李의 芳園에 모여 天倫의 즐거운 일을 껴냄으로써 浮生에서는 거의 없을 爲歡한 일을 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뛰어난 동생들인데, 惠連과 康樂은 謝惠連과 謝靈運¹⁷⁾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어지는 은혜(큰 은혜)’와 ‘큰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이니 동생들은 모두 뛰어나 큰 은혜가 되지만 나의 노래는 커다란 즐거움에 부끄럽다?” 우주 자연 거대시공이 즐거라고 이백에게 준 자질이 갑자기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사혜련은 시문에 뛰어난 才士였지만 벼슬이 그리 높았던 사람은 아니다. 이와 달리 사령운은 시문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관직도 높았고 康樂公도 지냈다. 주석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사령운이 사혜련만 만나면 영감을 받아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다고 말했던 기록에서 근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령운은 사혜련을 만나면 명시를 썼는데 이백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더라도 역시 같은 상황이다. 갑자기 왜? 이백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나?¹⁸⁾

문학 작품의 분석에는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추정의 영역이 있다. 이백의 문학 작품과 같이 화려하지만 치밀하지 않은 문학 작품에는 기존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마련이다. 현대 문학 이론 가운데

17) 사혜련은 ‘혜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사령운은 ‘강락’이라고 작위를 부른 것은 의도적으로 보인다.

18) 연구자에 따라 “홀로 사령운에게 부끄럽겠는가?”라고 번역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문 문장이 켜켜러운 느낌이다.

테의 하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를 저버린다는 의견이 있다. 즉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저자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말실수 등이 포함된다. 이것을 텍스트의 배반, 배신 등으로 부른다.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백의 겸손한 태도에는 그래서 이백의 문학적인 개성을 배신하는 어떤 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 요소가 문학적인 성질인지 현실적인 것인지 우리는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 추론의 범위 안에서 살피더라도, 현재 보이는 글 속의 이백의 겸손에는 다른 존재가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글 밖의 현실의 이백이다. <춘야연도리원서> 속에 만들어진 위대의 우주의 대리인 이백은 겸손을 보일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을 인용하자면,¹⁹⁾ 겸손이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끝없이 의심하고 보다 나아지기 위해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본인을 낮추고 보다 분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잘 보이거나 또는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겸손이다. 나쁘게 말하면 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춘야연도리원서> 속의 이백이 그 순간 본인의 노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다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그의 오만한 태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백이 겸손해진 이유는 다른 것을 찾아봐야 한다.

현재 이 글에 나오는 동생(從弟)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²⁰⁾ 그들이 벼슬을 하고 있는지, 文名을 얻은 문인들인지, 아니면 부자들인지 정확하지 않다. 형제의 고사를 사용해서 사혜련과 사령운의 이미지를 글에 쓴 것은 매우 좋은 글쓰기이다. 다만 종제들을 사혜련이라고 부르면 본인은 사령운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가 받은 위대한 문학 능력

19) 필자가 유명한 미국의 의학 드라마 *House M.D.*(2004년, 시즌1, 에피소드9, 33분 15초 전후)에서 의사인 House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이다. 원래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말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20) 이백이 안록에서 왕래하던 李幼成, 李畧이라는 설이 있다.

을 생각하면 ‘吾人詠歌, 獨繼康樂(홀로 사령운을 잇는다)’라고 말했어도 자연스럽다. 그랬다면 우리는 다만 ‘이백은 역시 자기애가 강하구나’라고 평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백은 본인이 사령운이 되길 주저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 종제들과 이백 본인의 사이를 사혜련과 사령운이라고 부르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다. 종제가 사혜련보다 고귀했거나 본인의 지위가 사령운보다 미천하였다. 보통 이 〈춘야연도리원서〉를 이백이 30대 때에 安陸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쓴 작품이라고 한다. 어쩌면 처가의 돈으로 나름 부유한 이씨 인물들을 불러 모은 자리일 지도 모른다.²¹⁾

둘째는 사혜련이 된 종제와는 무관하게, 오직 이백 본인의 처지가 사령운과 달랐다. 사령운은 높은 지위의 인물이고 이백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시문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비슷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백은 자신을 사령운이라고 부르는 순간 주저하였다.

두 가지 중에 어떤 사정이라든, 사령운을 거론하며 머뭇거렸다는 것은 반대로 글 속의 이백에게 현실적인 욕망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차라리 “나는 사령운이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이러한 욕망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자연의 대리인은 자신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끔하게 ‘급시행락’을 초월한 것으로 보였던 이백의 이야기에 미묘한 괴리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해설이다.

21)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백은 성이 李氏이지만 그 출신에 대해서는 설이 구구하다. 심지어 이백이 서역인이라는 설까지 있다. 그런데 이백은 중국 대륙에 넘어온 다음 여러 사람을 성이 같다는 이유로 친척이라고 불렀다.

VI. ‘浮生若夢’에 해석에 대해

서언에서 밝혔듯이, 이미 매우 유명한 문장인 “浮生若夢, 爲歡幾何?”에 대한 이해는 전체 <춘야연도리원서>에 대한 이해와 그 내용 맥락이 연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생약몽’은 ‘급시행락’의 태도와 함께 글의 전반부의 정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춘야연도리원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도리어 ‘부생약몽’이 전체 글 속에서 맡은 문학적 역할의 의미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백의 이 글에는 글 속의 이백이 아닌 다른 이백의 감정이 들어있다. 걸러지지 않은 인간 이백의 욕망이 인생에 대한 그의 다른 평가인 “浮生若夢, 爲歡幾何?”의 감상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

보통 “浮生若夢, 爲歡幾何?”의 이해는 주로 ‘浮生若夢’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여진다. 그리고 다시 ‘浮生’과 ‘若夢’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문제가 나뉜다. 그중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논하자면 ‘약몽’은 ‘꿈과 같다’라는 뜻인데, ‘꿈과 같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뉜다. 하나는 ‘꿈’처럼 찰나적이며 덧없고 무상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꿈’처럼 불가해하고 신비하거나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浮生’의 해석은 현재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필자가 이견을 제시할 부분이므로, 조금 더 검토하면 그래도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 하나는 수식 없이 ‘人生’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는 ‘덧없는 인생’, ‘알 수 없는 인생’, ‘물에 뜬 거품 같은 인생’, ‘부평초 같은 인생’, ‘뜯구름 같은 인생’ 등으로 보는 것이다. 보통은 단순히 ‘인생’으로 보는 것보다는 ‘알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결과도 없는’ 인생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며 이 <춘야연도리원서>에서도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사건적으로 ‘부생’은 <<莊子·刻意>>에서 기원했다고 한다.²²⁾ 莊子에 따

22) ……聖人之生也天行, 其死也物化. 靜而與陰同德, 動而與陽同波. 不爲福先, 不爲禍始. 感而後應, 迫而後動, 不得已而後起. 去知與故, 循天之理. 故無天災, 無物累, 無人非, 無鬼責. 其生若浮, 其死若休. 不思慮, 不豫謀. 光矣而不耀, 信矣而

르면 聖人은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의도하지 않는 존재이다. 억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에 순응하고 삶과 죽음도 온전히 받아들인다.²³⁾ 그러나 ‘부생’의 본래 뜻은 ‘어디로 물이 흐르든 거스르지 않고 떠다니는’, ‘의도하지 않는’, ‘어떤 욕망도 없는’, ‘도가 사상적’인 삶이다. 이 ‘부생’의 본래 뜻이 조금 변화해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정해진 결과가 없는’, 無常한 인생이 되었다.²⁴⁾

이러한 ‘浮生若夢’의 의미를 모으면, ‘인생’ 또는 ‘덧없는 인생’과 ‘매우 짧고 허무하다’, ‘알 수 없다’의 조합이 된다. 그 결과 “인생은 꿈처럼 순간이다”, “인생은 꿈처럼 알 수 없다”, “덧없는 인생은 꿈처럼 순간이다”, “덧없는 인생은 꿈처럼 알 수 없다”²⁵⁾의 대강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本稿의 앞에서 필자는 이 “浮生若夢, 爲歡幾何?”를 이백이 문학적으로

不期, 其寢不夢, 其覺無憂, 其神純粹, 其鬼不罷, 虛無恬憒, 乃合天德, 故曰, 悲樂者, 德之邪, 喜怒者, 道之過, 好惡者, 德之失, 故心不憂樂, 德之至也,……

……성인의 삶은 하늘의 운행과 같고 그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다. 고요하게 음과 덕을 같이 하고 움직이며 양과 과란을 같이 한다. 복의 앞이 되지 않고 화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감한 다음에 응하고 닦친 뒤에 움직이고 부득이한 뒤에 일어난다. 지혜와 허위를 버리고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 그러므로 하늘의 재앙이 없고 사물의 얽매이 없고 사람의 시비가 없고 귀신의 책망이 없다. 그가 사는 것은 물 위에 뜨는 것 같고 그가 죽는 것은 쉬는 것과 같다.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예상하거나 도모하지 않는다. 빛을 받지만 요란하지 않고 믿음직하지만 기약하지 않으며 잠을 자며 꿈을 꾸지 않고 깨어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 정신은 순수하고 그 혼백은 피곤하지 않다. 허무하고 염담하니 하늘의 덕과 합치된다. 그러므로 말하길, 슬픔과 즐거움이란 덕이 치우친 것이고 기쁨과 성냄은 도가 지나친 것이다. 좋아하고 미워함은 덕을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걱정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덕의 지극함이다,……

23) 이것이 패배주의적 태도인지, 모든 것을 초월한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4) 그래서 左鵬은 ‘浮生若夢’을 ‘도가적 인생 초월의 삶은 꿈에 불과하다(이를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左鵬, 〈析‘春夜宴桃李園序’中的“浮生”與“大塊”〉, 《青年文學家》 第9期, 2010, 37쪽 참고.

25) 예술 계통의 연구나 창작작업에서는 의외로 ‘浮生’과 ‘若夢’이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가령 추상화나 의상 디자인에서 ‘浮生若夢’을 주제로 사용하면 비극적이거나 숙명적인 의미보다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인간 세상의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만들어낸 상상의 인생관으로 작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백이 술과 시로 그 제한성을 초월할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하였다.

그런데 ‘홀로 강락에게 부끄러운’ 이백의 태도에서 이백이 완전히 도가적 세계관을 체화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춘야연도리원서〉에 나오는 이백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문이다. 그렇다면 전반부의 “天地者...爲歡幾何?”까지의 내용이 도가적 우주관을 완전히 설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에 대한, 그리고 명성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이 ‘浮生若夢’을 약간 다르게 이해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莊子의 출전을 무시하거나 기존의 흔한 이해(덧없는 인생)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浮生’은 글자 그대로 ‘떠 있는 인생’이다. 지금까지의 이해는 도가적 사상을 얼마만큼 강조하는 지와 상관없이, ‘개인이 좌우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러나 ‘浮’라는 글자의 본래 뜻은 ‘물에 뜨다’²⁶⁾이다. 그리고 다음 뜻은 ‘배를 띄우다’이다. 그러므로 ‘浮’가 ‘물에 떠서 물에 따라 출렁인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²⁷⁾ 다만 물에 떠있는 존재가 ‘의지’를 포기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浮生’을 ‘물에 몸을 맡기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설사 가라앉더라도)’라고 도가적으로 해석하거나 ‘물위의 거품처럼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포기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浮生’을 ‘가라앉지 않으려고’²⁸⁾ 노력, 분투하는 인생, ‘어딘가로 가고자 떠있는 인생’으로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莊子》는 ‘浮生’에서 ‘인간의 의지와 투쟁심’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浮生’이라는 漢字單語는 원래 다른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望文生意나 牽強附會가 아니다. 과연 고대의 중국인, 시

26) ‘浮’를 形聲字의 소리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뜻도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처음 뜻은 ‘헤엄치다’이다.

27) 가령 문화적인 비교 대상을 예로 들자면, 프랑스 Paris 시의 紋章에는 파도 위를 향해하는 범선의 그림 아래에 ‘흔들릴 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FLUCTIVAT NEC MERGITVR’는 글이 쓰여있다. 여기에서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浮’의 의미이다.

28) ‘浮’는 ‘沈’의 반대말이다.

인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만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춘야연도리원서>의 ‘浮生’을 ‘어떻게든 떠서 건디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 분투하는’, ‘어디론가 떠돌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끝내 좌절할 수도 있는’, ‘언제 가라앉아 사라질지 몰라 불안한’ 인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현실의 이백 개인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당나라 시대의 공통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사령운과의 비교를 망설이는 이백은 결국 사령운의 지위와 자신의 처지 사이의 큰 차이를 알고 있는 현실의 이백이다. 이 이백은 ‘浮生’의 삶을 살았지만, 과연 그가 어떤 성취를 이룰지 그조차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이백에게 그의 삶은 ‘浮生若夢’이다. 문학 작품 안에서 표면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춘야연도리원서> 속의 이백은 속세에 대한 욕망을 초월한 인물이지만, 이러한 해석에서 ‘浮生若夢’에는 현실의 이백의 욕망과 의지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浮生’을 이백과 동시대의 시인들의 공통적인 인생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현재 <춘야연도리원서>에서 슬픔을 극복한 것이 ‘성당기상’의 증거라는 연구자의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도리어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의지를 버리지 못한 시인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문인의 모습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글자 그대로 ‘떠돈다’는 의미에서는 唐代에 대표적인 邊塞詩를 연상할 수 있지만, 변세 시인만이 아니라 당대의 뜻을 얻지 못한 시인들은 상당수 중국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거친 세상을 (어쩌면 희망에 차서) 떠다녔고 가라앉지 않으려고 버텼다. 그리고 누구는 가라앉았고 누구는 어쩌다 목적지에 도달해서 결국 성공하였다.

VII. 李白의 詩文에서 ‘浮生’의 예

앞에서 추론한 ‘浮生’의 의미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부생’이

그렇게 쓰였었는지를 검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전체 고대 중국 문화나 문학의 영역에서 ‘浮生’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필자는 별개로도 방대한 연구작업일 것이다. 필자는 《全唐詩》에 나오는 용례를 살피거나, 또는 동시대의 杜甫의 작품만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은 전적의 용례를 보면 ‘부생’이라는 단어는 주로 당나라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런데 당나라 이후에 가장 유명한 ‘부생’의 출처가 바로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인 것을 생각하면 놀랍게도, 이백의 시에는 ‘부생’이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³⁰⁾ 이와 달리 두보는 몇 번 사용하였다.³¹⁾ 그래서 우선 필자가 비교하려는 것은 이백이 ‘물 위에 뜬 삶’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비록 ‘부생’이라고 직접 시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 위에 떠 있는 삶’에 대해 이백이 단지 ‘부질없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면, ‘부생’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의견은 그 합리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백은 직접 ‘浮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인생을 물(가령 黃河나 大海)로 비유하고 물에서 건디고 이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노래한 작품은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수만 들겠다.

29) 가령 《詩經》에는 ‘부생’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菁菁者莪>에는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載沈載浮’라는 표현이 나온다. 《文選》에도 ‘부생’은 없으나 ‘浮’라는 글자는 단언할 수 없게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가령 같은 ‘浮雲’도 작품에 따라 ‘뜨구름’도 되고 ‘상서로운 구름’도 된다. 《樂府詩集》에는 ‘부생’이 2번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이백의 시이다. 《漢語大詞典》에는 당 이전의 古詩에서 쓰인 ‘부생’의 사용례가 실렸다.

30) 이백이 신진 세계를 꿈꾸는 <對舟行>에 1번 쓰였다. “……浮生速流電，倏忽變光彩……” (‘부생’은 번개처럼 빨라서 순식간에 광채가 변했다.) 여기에서 ‘부생’은 덧없는 인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31) 단순히 《杜詩詳註》를 검색하면 12번 사용하였다. 그 외의 당시의 시인들의 작품에도 ‘부생’을 사용한 예는 여럿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해석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작품이 여럿 있었지만 本稿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行路難〉

金樽清酒斗十千,	금 술 단지의 맑은 술은 만 말이 되고
玉盤珍羞直萬錢	옥쟁반의 진귀한 음식은 가치가 만 전이네.
停杯投筯不能食,	잔 멈추고 젓가락 던지고 먹지를 못하니
拔劍四顧心茫然。	칼 빼고 사방 돌아보며 마음 아득하다.
欲渡黃河冰塞川,	황하 건너려하나 얼음이 강을 막았고
將登太行雪滿山。	태항산에 오르려 하나 눈이 산에 가득하다.
閑來垂釣碧溪上,	한가하면 푸른 시내에서 낚시 드리우다가
忽復乘舟夢日邊。	문득 다시 배를 타고 태양 가 가는 꿈을 꾀다.
行路難,	갈 길 험난하고
行路難。	갈 길 험난하다.
多歧路,	갈림길은 많은데
今安在。	지금 어디에 있는가?
長風破浪會有時,	긴 바람 타고 파도 깨는 날이 반드시 오리니
直挂雲帆濟滄海。	곧장 구름 같은 돛 걸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이 시는 배를 탄다고 물을 건넌다는 것이 이백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배를 타는 것은 험난하기 그지없지만, 만약 그 파도를 건너서 갈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다음은 〈춘야연도리원서〉와 비슷하게 사령운과 사혜련이 나오며 이백의 두 동생도 나오는 시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시와 〈춘야연도리원서〉와 등장인물이 같다고 생각한다.

〈送二季之江東〉

初發強中作,	처음 사령운이 강중을 떠날 때 지은 것은
題詩與惠連。	사혜련에게 지어준 시였다.
多慚一日長,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이 많이 부끄러우니
不及二龍賢。	두 용의 뛰어난에 미치지 못하네.
西塞當中路,	서새산이 도중에 있는데
南風欲進船。	남풍에 배를 타고 떠나려 한다.
雲峰出遠海,	구름 낀 봉우리가 먼바다에 솟았고
帆影掛清川。	배 그림자가 맑은 내에 걸려있으리.

禹穴藏書地,	우혈은 책을 보관한 곳이고
匡山種杏田.	평산은 살구나무 심은 곳이다.
此行俱有適,	이번 가는 길에 모두 가겠지만
遲爾早歸旋.	너희가 일찍 돌아오길 기다리겠다.

아마도 여행을 떠나는 아우들을 보내는 시이지만 이들이 물에 떠서 떠나는 것은 단순히 경치 유람이 아니다. 그들은 뛰어난 용이고 그들이 들릴 곳에는 우혈(유가적 가치)과 평산(濟世의 이상)이 있다. 어쩌면 강동으로 떠난 그들은 그곳에서 직업을 찾고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VIII. 결어

필자가 ‘浮生’의 의미에 ‘孤軍奮鬪’나 ‘성공이나 생존을 위한 의지’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려 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필자가 앞에서 비판했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태도³²⁾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필자나 다른 연구자나 <춘야연도리원서>의 문학 구조 안에 없는 내용을 스스로 믿는 바에 따라 억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희망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앞에서 논했듯이, 기존의 연구나 평가가 <춘야연도리원서>를 완성된 문학 작품으로 보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춘야연도리원서>는 전반부의 시작에서, 비록 哲學的이고, 先驗的³³⁾이며, 문학적이며, 전통적이고, 추상적이고, 상투적이고, 비구체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백 스타일의 과장적 목소리로 우주 자연과 인생에

32) <춘야연도리원서>에 나오는 ‘及時行樂’에 중국 문학의 전통이나 인간 생애의 철학적 성찰과 같은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李白이 그러한 짧고 부질없는 인생을 극복하여 자연과 인생을 사랑하고 긍정했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가리킨다.

33) 이백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정의가 아니라, 이백 역시 학습한 이전 사람들의 결론이다.

대한 일종의 가치 평가와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곧장 ‘특별한 이유 없이’ 이백에게 변화하는 우주 자연의 찰나적인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 남길 자격을 주었다.

후반부에서 이백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桃李園’에서 꽃과 달을 즐기면서 從弟들에게 이 행락에 참여할 것과 시 쓰기로 酒肴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러한 이백의 모습은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내용이 없는 문학적인 성격의 것이다. 아울러 그가 마지막에 시를 못 썼을 때 행하겠다는 벌칙 역시 西晉의 대부호이자 귀족인 石崇의 예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백이 끝까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동을 문학적이며 전통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춘야연도리원서>는 시중 문학적 전통 속에서 고귀하고 화려한 존재로 기쁨을 토하는 이백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도리어 ‘浮生若夢’을 지금까지 모두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인생은 꿈과 같다’ 또는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다’라고 소극적이고 포기적이거나 달관한 도가사상가의 목소리로 해석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필자가 분석한 <춘야연도리원서>의 내용의 흐름과 이백의 목소리와 전혀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해석에서 ‘浮生’은 문학적인, 전통적인, 상투적인, 추상적인, 결과적으로 이백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지만, 이 글 속의 자연의 위대한 대변인인 이백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필자가 굳이 문학적인 이백의 발언 태도에서 현실의 이백의 미련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浮生’에 현실의 이백이나 당나라의 문학 종사자들의 욕망과 의지와 고난을 대입시키려고 한 것은 공연히 아주 작은 공부로 관심병을 일으켜서 허세를 부리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도 필자가 이처럼 ‘浮生若夢’을 ‘출렁거리는 배를 타고 견디고 버티는 삶은 꿈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마도 ‘浮生若夢, 爲歡幾何?’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분히 환상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심장한’한 매력을 이백과 당대의 다른 시인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全人類의 文學人의 인생

에 대입하려고 한 것일 수 있다. 현재 잠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비록 이 백과 다른 시인의 시에서 이처럼 도전하거나 지키려는 인생을 ‘배를 탄 것’에 비유한 예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浮生’의 해석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唐詩들이 있기는 하지만, 宋 이후로도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처럼 필자가 문학원리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춘야연도리원서>에는 원래 그런 의미의 ‘浮生’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³⁴고 말하면서도 ‘浮生’에 ‘인생에 대한 의지와 욕망’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浮生’이라는 이 단어가 인생을 정의하는 매우 매력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인, 또는 고대의 지식인이 인생을 적극적(또는 도전적, 또는 반항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때에 충분히 이 ‘浮生’을 사용할 수 있다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9세기 초 淸의 沈復의 자전적인 소설(산문이라고 한다. 출판은 19세기 후반에 되었다) 《浮生六記》는,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대단한 인생의 성취도 없는 공상맞은 문인의 이야기였다. 저자는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특별히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한평생을 놀며 쪼들리는 인생만 살다가 아내도 죽고 자식들과도 헤어진 다음에 자신의 지난 인생에 대해 반성 없는 한탄만 하였다. 중국 문학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저자의 아내)이 나온다는 이 책에 대한 소개에는 그 제목 ‘浮生六記’가 이백의 ‘浮生若夢，爲歡幾何?’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나온다. 확실히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浮生’은 ‘부질없는 인생’이 맞다. 그리고 현대의 중국 사람들도 ‘浮生’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중국에서 출판된 謝凌潔의 소설 《双桅船》의 소개에 나온 “瀚世浮生，決不迷航!(넓은 세상 떠 있는 삶에서, 결코 배가 갈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카피를 보면 중국인에게도 이미지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34) 물론 필자는 서론에서 <춘야연도리원서>에 미묘한 문학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문헌 >

- 李白(예추이화 등 역), 《시의 신선 이백이 글을 짓다 이태백 문집》, 박문사, 2019.
- 范培培, 王芳, 〈李白的“及時行樂”思想是消極的嗎?——以‘春夜宴從弟桃李園序’爲例〉, 《文教資料》 第12期, 2013.
- 金卿東, 〈“光陰者百代之過客”新解——兼論“光陰”一詞的基本義和引申義〉, 《漢語語文學研究》 第4期, 2019.
- 孔令斌, 〈從‘春夜宴桃李園序’談高職語文工具性教學〉, 《產業與科技論壇》 14卷, 2018.
- 李鳳姣, 〈讀率性文章, 品詩意人生——‘春夜宴從弟桃李園序’教學設計〉, 《試題與研究》 25卷, 2019.
- 覃業朝, 鄧正榜, 〈‘春夜宴桃李園序’譯評〉, 《語文教學與研究》 第12期, 2015.
- 肖偉, 〈讀‘春夜宴諸從弟桃李園序’千回百轉兩不厭〉, 《語文天地》 第8期, 2015.
- 姚卿云, 李淑蘭, 〈‘春夜宴諸從弟桃李園序’教學設計與點評〉, 《新教育》 第8期, 2013.
- 郁梅, 〈浮生若夢——讀李白‘春夜宴桃李園序’〉, 《名作欣賞》 第5期, 2012.
- 左鵬, 〈析‘春夜宴桃李園序’中的“浮生”與“大塊”〉, 《青年文學家》 第9期, 2010.

< Abstract >

This thesis is a literary analysis of Li-Bai's prose "Feasting in the Peach-plum Garden in Spring Night". In the process, this thesis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interpretation misread this “Feasting in the Peach-plum Garden in Spring Night”. “Feasting in the Peach-plum Garden in Spring Night” was a work in which poet Li-Bai's personal and literary sense of self clearly appeared and this literary poet was a person with extremely arrogant prid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int where real and literary poets disagree with each other in the “Feasting in the Peach-plum Garden in Spring Night”. His humility, which does not fit the content of the article, means the breakdown of the prose content. Focusing on this phenomenon, this thesis argued that “The Floating life” in “The floating life is like a dream, and how brief the enjoyment is?” which is the famous phrases of the article that already had a great reput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life that pursues and strives to the end, not just an inevitable passive life.

Key Words : 春夜宴桃李園序(*Feasting in the Peach-plum Garden in Spring Night*), 浮生(The floating life), 浮生若夢(The floating life is like a dream), 李白(Li-Bai), 謝靈運(Xie-Lingyun)